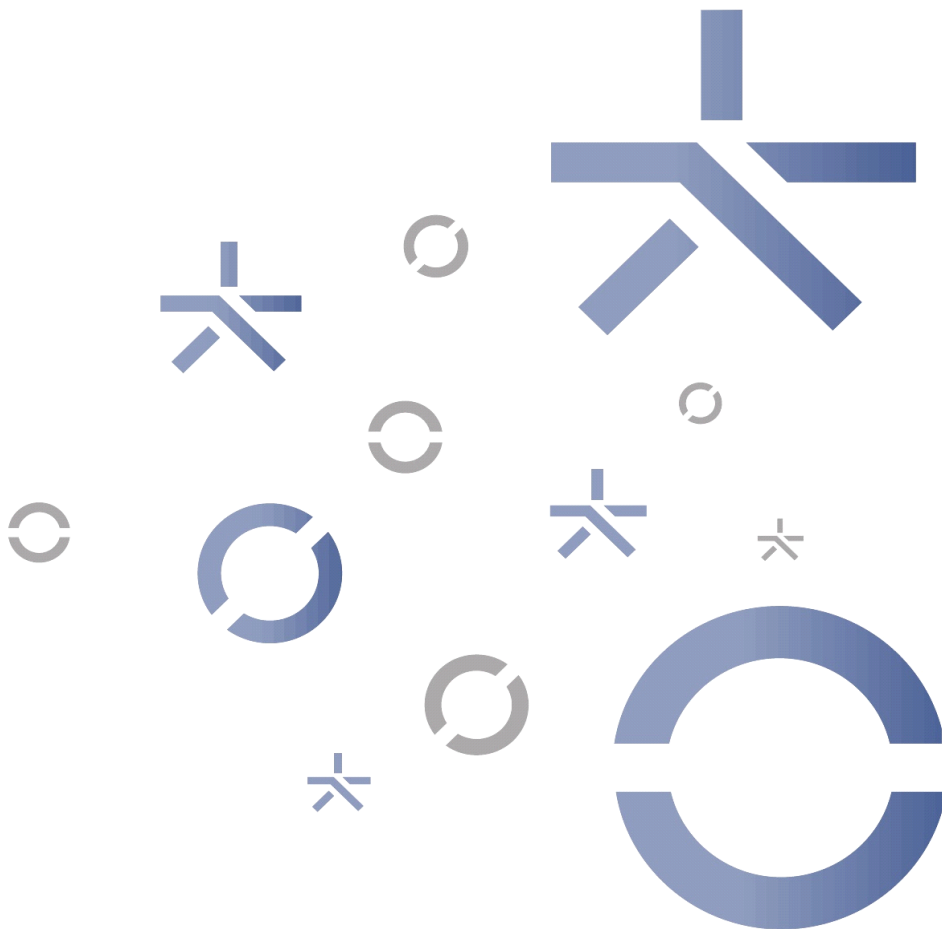


인천시 공예문화산업 진흥방안

최영화



연구책임

최영화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032-260-2694

yhc@ii.re.kr

열람방법

인천광역시 행정자료실

인천연구원 자료실, 홈페이지(www.ii.re.kr)

인천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인천시 공예문화산업 체계적 진흥 필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인천시는 2022년에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체계적인 진흥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공예문화산업은 문화예술, 문화유산, 관광, 미스(MICE), 디자인 등 연관된 분야가 다양하므로 산업적 확장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예품에는 문화적·예술적·실용적 가치가 있어 이를 대중화한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적 삶과 지역의 정체성도 강화할 수 있다.

인천시 공예문화산업 진흥방안 도출을 위해

관련 법령과 계획, 실태 및 사례 검토

본 연구는 인천시 공예문화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진흥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관련 법률과 주요 계획 등 정책 여건을 살펴봤으며, 인천시 공예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선도적으로 공예문화산업을 지원해오고 있는 국내 타 지자체(청주시, 광주시, 진주시) 사례를 조사하여 인천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조사 결과, 타 지자체는 정책추진기반을 마련하고, 공예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공예전문인력 양성, 공예품 유통 및 홍보 지원, 시민 공예문화 향유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한 1인 공예사업체가 대부분으로 유통 및 판매가 가장 큰 문제

인천시의 공예문화산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예인력은 공예단체 3개와 공예 분야 등록예술인, 유관 분야인 디자인 전공자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예사업체는 주로 1인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고, 40~60대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예사업체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은 공예품의 유통 및 판매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과 기술 개발 및 자금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예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설 전시판매장 조성, 지역특화 공예품 개발 지원, 공예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수요가 높았다.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딩을 강화하는 인천 공예문화산업

인천시 공예문화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딩을 강화하는 인천 공예문화산업”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공예문화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인천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비전의 실현을 위해 3대 목표(①공예 창작환경 및 역량 강화, ②공예품 소비 및 시장 확대, ③공예문화 확산 및 교육 강화)를 설정하고, 5대 추진전략과 16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과제가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조례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천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중장기 진흥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주제어

#공예문화산업 #공예클러스터 #공예전문인력 #공예유통마케팅 #공예교육

이 보고서는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www.ii.re.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